
여덟째 마당

예수와 여인

근래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봄으로써 종래 남성 위주의 성서해석에서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가지 지적 중에서 첫째 가부장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예수운동을 가부장제도와 연관 속에서 조명하는 것,¹⁾ 둘째 이런 맥락에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예수가 남성과 대비해서 여성에게 제자로서 어떤 위상을 주었느냐 하는 것²⁾이 핵심적으로 주목된다. 그외에 하느님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호칭에 대한 논란,³⁾ 하느님과 관련하여 여성적인 것을 거부하는 등의 전통적인 시각에 도전하려는 시도⁴⁾도 있으나 이런 입장에는 무

1) E. S. Fiorenza, *In Memory of Her. A Feminist Theological Reconstruction of Christian Origins*, New York, 1983. 피오렌자는 가부장적 구조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예수의 하느님 나라 선포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2) Luise Schottroff, "Frauen in der Nachfolge Jesu in neutestamentlicher Zeit," in: *Traditionen der Befreiung* 2, W. Schottroff · W. Stegemann (Hrsg.), München, 1980, S. 91~133/김윤옥 편, 『여성해방을 위한 성서연구』, 한국신학연구소, 1989, 179~225면.

3) Catharina Halkes, "Motive für den Protest in der feministischen Theologie gegen Gott den Vater," *Concilium* 17Jrg, Heft 3(1981. 5)에 이 주장이 소개되어 있다/한역본, 김윤옥, 앞의 책, 21~33면.

4) Rosemary R. Ruether, "Is Christianity Misogynist? The Failure of

리가 있고, 또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여성의 입장에서 성서를 보려는 노력은 남성 중심의 시각을 당연시해온 전통적인 해석에 제동을 걸었으며, 특히 예수운동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마당에서는 이러한 물음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구약의 전통과 예수의 시대적 상황인 유다교의 맥락 속에서 예수와 여인의 관계를 다각도로 밝혀보려고 한다.

유다 사회에서 여성의 위상

유다 사회 전통의 원천인 구약에서의 여성관이 결코 한 갈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가 고착화됨에 따라 남녀차별이 모든 분야에서 고질화된 것이 사실이나 그 밑바닥에는 그 이전 또는 그와 병행해서 남녀평등사상 내지 여성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성서 전체는 그 시대의 전반적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가부장제도를 당연시하는 사회 안에서 남녀차별은 필연적인 것이다.

여인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家父)에게 예속되어 있다가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예속된다.⁵⁾ 결혼할 때는 혈연관계와는 또 달리, 타인에게 상품처럼 팔려가는 셈이다. 가령 군대에 징집되는 것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새 집, 새 포도원이 있는 경우와 함께 약혼녀가 있는 경우를 나란히 언급하는 것에서(신명 20, 7)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인은 재산목록의 하나로 간주되었다.⁶⁾ 그것은 노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다.

Woman's Liberation in the Church," in : *Liberation Theology*, New York, 1972, p. 95~114.

5) J. Jeremias, *Jerusalem*, S. 404 / 한역본 460면.

6) 루가 14, 15~24의 비유에서 그런 예를 본다.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만찬의 참

그러므로 노예가 주인에게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한 여인은 남편을 주인(ba'al)이라 불렀다.⁷⁾ 남성은 여성을 노동력의 하나로 간주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허락하는 만큼 일부다처제를 이용하여 아내라는 이름으로 여인의 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한 것이다.⁸⁾ 그러나 일반 재산목록과 다른 점은 여인은 가부장제도하에서 혈통을 잇는 기능인으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다말의 예(창세 38장)만으로 충분하다.

성(性)에서의 남녀차별도 뚜렷했다. 가령 남아를 낳는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그 부정이 정화되기까지는 33일 동안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집에 있어야 했는 데 비해, 여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그 부정의 기간을 남아의 경우보다 꼭 배로 계산했다(레위 12, 1~5).

이상은 많은 예 중의 몇 가지에 불과한 것이며, 남녀차별의 기본적인 근거로 요약된 것이 이른바 창조설화 중 야위스트자료(창세 2장)에 집약되어 있다. 이것을 근거로 남녀의 종속관계를 정당화했으며, 반대로 그러한 사회제도가 집약되어 반영된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이다. 여인 이브가 만들어진 동기는 첫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를 도울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느님이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창조하여 아담에게 예속시켰으나 저들은 아담을 돕는 것들이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아

여를 거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거는데 여기서 밭, 소, 여인은 같은 반열에 놓여 있다.

7) Jos., C. Ap., II, 24, § 201.

8) J. Jeremias, a.a.O., S. 406/한역본 462면. 예레미아스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일부다처제가 흔한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당시 여성노동의 산물에 대한 남성의 지배권이 완전하게 인정되었음을 전제한다면, 예레미아스의 결론은 지나치게 문헌적 증거에 의존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담의 갈빗대에서 이브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것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이브는 남자와의 관계에서는 창조질서에서부터 종속적이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줄 대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여러 종류의 동물을 이브를 만들기 이전에 창조했으나 저들이 그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브를 창조했다는 사실이다.⁹⁾ 이러한 남녀관은 성서에 고유한 것이 아니며 세계 여러 나라의 고대신화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을 극도로 모멸한 내용이다.

이에 반해서 가장과 맞먹는 역할을 해내는 여성상(사라, 레베카, 레아, 라헬, 나오미, 한나 등)이 있는가 하면 예언자 미리암(출애 15장 ; 민수 12장), 판관의 자리에 오른 드보라(판관 4, 4 이하), 나아가 침략군의 적장을 살해한 야엘(판관 4, 17~22), 스스로 왕을 참칭한 아비멜렉을 죽인 무명의 여인(판관 9, 53) 그리고 에스더 등 자기 종족을 구하는 용사의 모습도 있다. 그런가 하면 성법전에서는 여인의 보호에 상당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다른 또 하나의 줄기는 창조설화 1장(P자료)에 잘 집약되어 있다. 여기서는 하느님의 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27절). 여기에는 남자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라거나 그의 보호자로서 또는 그의 몸에서 여인을 만들어냈다는 대목은 흔적도 없다. 단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을 총괄하게 하기 위해서 남녀를 동시에 창조했다는 것이다. 창조에서부터 남녀는 더불어 일하는 존재로서 똑같은 임

9) 군켈과 베스터만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로 이브를 창조한 이야기가 남성과 여성의 동류성, 동질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하지만, 창세 2, 21 이하에 근거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선차성, 창조질서에서의 남성우위를 주장하는 견해가 정통적 견해로 굳어져왔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H. Gunkel, *Genesis*, Göttingen, 1969⁸, S. 12; C. Westermann, *Genesis BK*, 1/ I, Neukirchen-Vluyn, 1976², S. 313f).

무를 공동으로 지닌 평등한 존재다.¹⁰⁾

그런데 이 여인상은 바빌론 포로 이후 야위스트자료에 의거해서 그 위상이 결정되고 만다. 한 예를 들면 필로는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한다. 그것은 창조질서에서부터 남자는 이성(nous)에 의해 움직이는 데 반해 여자는 감각(aisthesis)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함으로써 이 시각에서 여성의 역할을 규정해갔다.¹¹⁾ 이런 전제는 라뻬문서의 도처에서 볼 수 있는데, 여성은 남성의 유혹의 대상이며(bBer 24a), 남성이 여인의 충고를 들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가 하면(bBM 59a), 여인을 허영·호기심·불결·질투·수다의 상징처럼 말하는데(BerR 45, 5) 이런 것은 모두 야위스트자료의 실락원설화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여인을 아이나 노예와 같이 취급해버린다(bNid 31b).

후기 유다교로 내려올수록 남녀차별이 엄격해서 여인은 토라를 배울 권리가 없고 회당에서 가르칠 권리도 없으며, 라뻬는 여자를 제자로 둘 수 없음은 물론, 자기 아내가 아닌 여인과 길에서 마주하는 것도 수치로 여길 정도였다. 그러므로 유대인 남성들은 매일 아침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감사기도를 드렸다(bMEN 43b).

이런 유다 전통이 신약에까지 이어져서 바울로는 여인에게 공적인 모임에서 잠잠할 것을 명령하는가 하면(고전 14, 34), 그리스도가 남

10) 레터 러셀은 칼 바르트의 성차별론(K. Barth, *Kirchliche Dogmatik*, III / 2, Göttingen, S. 19)을 비판하면서, 여성과 남성은 모두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형상은 내재적 삼위일체, 곧 3위의 완전한 동반자적 의사소통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여성과 남성은 평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치유받은 셈이라고 한다(R. Russell, *The Future of Partnership* / 김상화 역, 『파트너십의 미래』, 대한기독교출판사, 1983).

11) Philo, *de opif. mundi*, § 134ff.

성의 머리인 것처럼 남성은 여성의 머리(고전 11, 3)라고 하면서 여성에게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을 요구했다(고전 11, 10). 그런가 하면 그보다 훨씬 후에 기록된 복음서마저 여인을 아이들과 더불어 사람 수에서 제외하고(마태 14, 21·16, 38), 제자들을 서술할 때 여인을 표면에 내세우지 않았으며, 일찍이 형성된 부활증인을 열거하는 반열에서도 여인에 대한 증언을 제거해버렸다(고전 15, 3~8). 그러면 예수에게 있어서는 어떤가?

여인에 대한 예수의 관심

여인에 대한 예수의 일반적 평가: 복음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 내용이 짧은 데 비해 예수와 여인의 관계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그 당시의 사회풍토로 보아 예수가 여인과 관계했다는 사실은 결코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러한 전승들이 전승과정에서 많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예로 초기에 쓰여진 서간에는 예수를 따르던 단 한 사람의 여인의 이름도 거명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십자가사건과 부활의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도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라고 하던 그 여인의 이야기도(마르 14, 19)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는 예수가 여인과 접촉한 십여 차례의 경우가 전승되고 있는데, 그중의 일부는 예수와 남자들의 관계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실은 뒤에서 좀더 집중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예수가 여인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은 예도 많다. 그런데 그것들의 예외없이 적극적이고 또 중요한 문제와의 관련에서 언급되고